

‘서해안의 제2 대동맥’, 서부내륙고속도로 평택-부여구간 개통

- 12월 10일 낮 12시 개통... 경기 서남부에서 충남권 서남부 60분대 연결
- 평택항,아산·홍성국가산단 등 산업 거점 연결 및 서해대교 교통정체 완화

- 서부내륙고속도로 평택-부여 구간이 12월 10일(화) 오후 12시 정각부터 개통한다.
 - 국토교통부(장관 박상우)는 12월 9일(월) 오후 3시 예산 예당호휴게소에서 국토교통부 장관을 비롯해 지방자치단체, 공사관계자 및 충청남도·경기도 주민 등 약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서부내륙고속도로 평택-부여구간 개통식을 개최한다.
 - 개통식에서는 건설사업 유공자에 대한 국토교통부장관 표창도 수여한다.
- 서부내륙고속도로는 경기 평택시부터 전북 익산시까지 연결하는 노선이다. 민자고속도로 중 가장 긴 노선(총 137.4km)이다.
 - * 주요 민자고속도로 : 상주-영천 93.9km, 대구-부산 82.1km, 천안-논산 81.0km
 - 사업은 평택-부여 구간과 부여-익산 구간으로 나누어 진행되고 있으며, 이번에 개통하는 평택-부여 구간은 1단계 사업으로 총사업비 약 3조 2,700억원이 투입된 왕복 4차로 및 연장 94km의 고속도로이다.
 - * 부여-익산(2단계 사업) : 연장 43.4km, 왕복 4차로, 총사업비 1조 1,500억원

□ 서부내륙고속도로 평택-부여 구간은 ‘서해안의 제2 대동맥’으로서 수도권 서남부에서 충청권 서남부까지 60분대, 새만금지구까지 90분대로 연결하며, 이를 통해 지역 접근성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.

○ 평택시 포승읍부터 부여군 규암면까지 이동거리는 약 32km 감소(132km →100km)하고, 주행시간은 약 26분 단축(91분→65분)되며, 특히 인근의 서해안고속도로와 경부고속도로의 교통량이 분산되어 서해대교, 천안·안성 분기점 등의 상습정체도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.

* 서해안선(서해대교) : 교통량 20% 감소 / 경부선(북천안IC~안성IC) : 교통량 7% 감소

○ 아울러, 평택항의 접근성이 제고되고 아산국가산단, 계획 중인 홍성국가산단, 새만금 지구 등의 주요 산업거점의 교통 여건이 개선되어 경기·충남·전북 등 서부권의 기업 투자를 촉진하고 지역 경쟁력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.

□ 국토교통부 박상우 장관은 “서부내륙고속도로 평택-부여구간 개통으로 충청권과 수도권이 더욱 가까워지고, 서해안의 여러 산업 거점이 연계되는 등 지역의 활력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”면서,

○ “앞으로도 전국 2시간 생활권 조성을 목표로, 지역 간 교통 격차 없는 꿈꾸는 교통망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다”라고 밝혔다.

담당부서	도로국 도로투자지원과	책임자	과 장	김경현	(044-201-3897)
		담당자	사무관	이기세	(044-201-3898)
		담당자	사무관	남공영	(044-201-3902)
<협조>	대전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계획과	책임자	과 장	류재원	(042-670-3510)
		담당자	주무관	경관수	(042-670-3533)
		담당자	주무관	박영국	(042-670-3532)



참고

위치도

